

유럽에 먼저 간

한국 간호원들

<연세의대 흉곽내과 교수> 김 기 호

나는 지난 4월25일 서울을 떠나서 약 3개월간 유럽의 여러나라를 여행하는 동안 많은 우리나라 간호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처음 우리나라 간호원들을 만나게 된 곳은 5월13일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에서 우리 학교 마취학 교실의 오홍근 선생과 생화학의 김재현 선생을 만나서 반갑게 저녁을 같이 하러 「상하이」라고 하는 어느 중국 “레스토랑”에 갔을 때 우연히 그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때는 간단한 인사만으로도 누가 누군지 모르고 헤어졌다.

그러나 처음 만난 그들이 여간 반가웠던 것이 아니며 같이 앉아 이야기를 못하고 헤어진 것이 못내 아쉽게만 여겨졌다. 두번째로 내가 우리나라 간호원들을 만나본 것은 “덴마크”를 떠나서 처음으로 “노웨이”의 수도 “오슬로”에 갔었던 저녁이었다. 마침 “호텔” 예약이 뜻대로 되지 않아 주소만을 들고 찾아가 “닥터” 박 맥에

서 두번째로 한국 간호원인 C양을 만나게 되었다. “닥터” 박은 “오슬로” 시내에서 가장 큰 병원인 “올레발” 병원에서 마취과 일을 맡아보는 선생으로서 마침 그 부인과 함께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병원인 “올레발” 병원의 한국 간호원들은 가끔 그 때에 놀러 오는 수가 많으며 마침 그날은 C양이 놀러 왔다가 나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 “올레발” 병원에는 한국인 간호원이 한 7~8명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서울의 중앙의료원 간호학교 출신 간호원들로서 그날 저녁 C양을 통해서 알게 된 “노웨이”에 와 있는 대부분의 우리 간호원들은 상당히 착실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6월 1일부터 25일까지 근 1달동안 “노웨이”에 머무는 동안 나는 한국 간호원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반도센” 병원을 두번 찾을 기회가

있었다.

된장국과 불고기 대접을;

첫번째 기회는 6月 15日 중앙의료원 X선과 과장으로 제신 강박사와 함께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발도센” 병원은 자동차로 약 1시간 되는 “오슬로”의 시외 서남방에 자리잡고 있는 한적한 요양원으로서 그 요양원 원장인 닥터 “툽슨”은 오랫동안 서울 중앙의료원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분으로서 한국 간호원들에 대하여 꼭 인자하고 다정하게 보살피준다는 평판이었다.

마침 우리가 그 곳에 닿은 시간은 저녁 7시였지만 여름철의 북 유럽은 낮이 길고 밤이 짧은 관계로 서울의 오후 너덧시 정도로 환한 시간에 그곳에 닿았던 것이다. 한국 간호원들이 기숙하고 있는 곳은 4층 꼭대기에 한 “쿼터”들 다 쓰고 있었다. 그 이유는 한국 간호원들이 마음대로 본국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특별한 호의를 베푼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사실 강박사와 내가 그 곳에 닿았을 때 마침 비번으로 쉬고 있던 우리 간호원들은 나와는 초면이었지만 강박사와는 구면이었기에 정말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의례 의지에 여행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이 한국 음식을 대접받는 것인데 눈치빠른 그들은 어느새 밥과 된장국을 끓여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어 무엇보다도 고마웠다.

그 때 그곳에서 알게 된 것이지만 그 “발도센”병원 직원들은 얼마나 한국 간호원들에게 친절한지 예를 들면 기숙사의 문적이 활아버지는 밤늦게 낮설은 자동차가 기숙사 앞 마당에 정차하고 있으면 곧 건물 안에 들어와서 혹시 한국 간호원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성의 있게 들보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놀웨이”에 있는 동안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6月 23日 두번째로 “발도센” 병원을 방문했을 때였다. 그날은 “놀웨이”에서는 하지절(夏至節)로서 즉 1년중 해가 가장 긴 하지를 맞이하여 마치 한국의 추석처럼 각 관공서가 문을 닫고, 하루 이틀 쉬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는데 마침 그 날을 맞이하여 “오슬로”와 그 근방에 있는 한인 교포들이 모두 모여서 하지절을 뜻깊게 지내자고 미리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나는 그날 그 곳에서 많은 한국 간호원들과 의사들 그리고 한국과 인연이 있는 “놀웨이” 사람들과 즐거운 저녁을 지낼 수가 있었다.

장소로서 “발도센”병원을 택한 이유는 그곳이 교외 한적한 곳에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 구내에 큰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호숫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역 만리 “놀웨이”에 와 있는 한국사람끼리 모처럼의 명절을 같이 즐기자는 뜻에서 그 곳으로 모이기로 했던 것이다.

그날 모인 간호원들은 “발도센”병원의 10여명의 한인 간호원들과 또 “오슬로” 시내의 “올레발” 병원에서 그곳까지 온 5—6명의 간호원을 합쳐서 근 20명의 간호원들이 스텍스에 화려한 세타들을 입고서 불고기와 음식탄드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볼 때 나는 한없이 그들이 매절하게 보여졌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놀웨이”에 있는 간호원들은 대부분이 서울 중앙의료원 간호학교 제 1회 졸업생들로서 대단히 우수한 간호원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평판이 꽤 좋았으며 내가 관찰하기에는 모두가 씩씩하고 똑똑한 한국의 아가씨로서 어디에 내놓아도 꿀필 때가 없는 훌륭한 간호원들이라고 여겨졌었다.

오후 9시가 지나 어둑 어둑해지자 그들은 흥에 겨워 모든 사람들이 뒤섞여 어깨동무를 하고 호수가에 피워놓은 모닥불 주위를 빙빙 돌면서 애국가와 6.25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는 것을 보고, 나는 나도 모르게 목이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침 그 자리에는 얼마전 “놀웨이” 주재 한국 명예 총영사로 임명을 받은 미스터 “홀테”도 와 있어서 나와같이 그들의 친진난만한 놀이를 보면서 한동안 무한히 자랑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날밤 그곳에 보였던 사람들은 한 종이에 각자의 이름을 싸인 해서 열 마후 교국에 돌아갈 나에게 선물로

주던 것이 아직껏 고맙게 생각된다.

6月 25日 정든 “놀웨이”를 떠나서 “스웨덴”을 거쳐 영국으로 가는 길에 나는 예정보다 당겨서 서독의 “후랑크 후룟트”를 방문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때까지 “스칸디나비아” 여러나라에서 만난 간호원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내가 근무하는 연세대학교 간호과 출신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 간호과 출신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후랑크 후룟트”를 방문할 기회를 나는 항상 머리 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곳 대학병원에는 “세브란스” 병원의 나의 진찰실에서 금년 2月까지 단일년 반동안 수고를 한 C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나는 꼭 “후랑크 후룟트”에 들러서 개인적인 입장이라기 보다는 연세의과대학 교직원의 대표로서 그곳에 있는 10여명의 간호과 출신들을 만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사전에 나의 도착을 알고 있던 C양은 6月 28日 저녁 때 비행장에 나를 마중 나와 주었고 차가 없는 그는 차를 가지고 있는 자기 독일 여자 친구와 함께 비행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행장에서 짐을 찾아가지고 나선 나는 많은 환영객 가운데 아름답게 한복을 입은 C양이 미칠듯이 손을 흔들고 나를 반겨주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한달음에 달려가 하마트면 C양을 겨안을 정도로 반갑게 만났었다. 비행장에서 시내로 들어 오는 동안 C양은 그동안에 쌓이고 쌓인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흥분해서 거의 말을 못할 정도로 반갑다는 말만 연발하고 있었다.

낮선 이 땅에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되었느냐고 묻는 나의 물음에 대하여 그는 별로 고생스럽지는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는 안심할 수가 있었다.

도착한 다음날 29日 오전에 시내 관광을 다친 나는 저녁때 비로서 우리 간호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후랑크 후르트” 대학병원 간호원 기숙사를 C양의 안내로서 찾아가게 되었다.

대학병원은 그리 새로운 건물은 아니지만 상당히 넓은 구내에 세워진 건물인 것 같이 보였으며 그 위에 세워진 간호원 기숙사는 비교적 낡은 건물이긴 하나 조용한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곳 병원에서도 역시 “발도센”병원과 마찬가지로 4층 한 층을 한국 간호원들을 위하여 내어주고 있는 모양으로 그 안에서 우리 간호원들은 마음대로 음식을 만들어 먹일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었다.

내가 그곳에 닿자 이방 저방에서 물러나온 우리 간호원들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반가워 했으며 내가 있는

방에 제각급 만든 한국 음식을 가지고 온 것이 큰 상 두개에 넘쳐 호를 정도로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게 느껴졌던 것이다.

이곳에 와 있는 간호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는 나는 아니지만 그들의 얼굴을 훑어 보았을 때 나는 사랑하는 동생과 딸들을 만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정말 반가웠다.

나를 중심으로 둘러앉아서 빙긋거리며 쳐다보는 그들의 얼굴을 한동안 훑어본 나는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되었는가 위로의 말부터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역만리 떨어진 서독 땅에서 처음으로 자기 학교 선생을 만나게 된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그들은 그들대로 서러움이 없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어 그들의 서러운 사정이나 들어 보자고 나는 일일이 그들에게 고생되는 점을 말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주는돈 만큼의 일을;

첫째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 보다는 그곳에서의 일이 힘들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단지 서독사람들의 국민성이 돈을 주고 남을 쓰는 마당에서는 주는 이만큼 일을 시킨다는 철저한 철학을 이해하지 않고는 제대로 일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현재 독일에는 약 3만명의 간호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취직해 오는 간호원들을 안출할 수 없는 형편이며 또한 그들이 철저한 일을 하지 않고는 못견딜 정도로 모든 것이 꼭 짚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단지 예기치 않았던 것은 대체로 서독 간호원들의 정도는 우리나라의 대학과정을 마친 간호원들 보다는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보였으며, 사실상 그들은 일에 있어서 더러 쓰는 점이 우리나라 간호원들 보다 떨어진다는 그러한 평판을 제 3자에게서 듣게 되었을 때 일리 있는 것으로 생각 되었다.

우리 간호원들이 처음으로 그곳에 갔을 때 당면한 어려웠던 점은 어학의 부족이었다.

영어에는 어느 정도 익숙하였던 그들도 별안간 사용해야 될 독일어에 대하여는 물론 사전에 어느 정도 어학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책에서 배운 것과 실제 회화와는 역시 익숙해 지지 않고서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어려웠지만 대부분 그들의 연령이 젊은 탓인지 내가 방문했던 그 때 즉 서독에 간지 6개월이 거의 지난 그 때에 그들은 간단한 회화는 물론 시내에 나가서 “슈핑”을 하는 때에는 거의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회화가 가능한 것을 보고 나는 꽤 대견하게 여겼던 것이다.

어떤 간호원은 자기네 체구가 서독 간호원들보다 작기 때문에 실지르 병실에서 환자를 다룰 때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중환이기 때문에 우리 간호원이 뚱뚱한 환자를 다룬 침대로 옮기려고 할 때는 환자가 무거워 찢절때는 우리 간호원들을 보다 못해 자기가 걸어가 새 침대에 눕는다는 우스운 이야기도 들었다.

사실 체구가 작은 우리 간호원들이 독일 간호원과 섞여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게 여긴 환자들은 우리 간호원들을 꽤 좋아하고 호의를 베푸는 수가 적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또한 독일 남자 의사들도 정도가 높은 우리 간호원들에 대하여 여간 호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호의가 우리 간호원들에게 화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어느 간호원의 말을 듣고 나는 쓴 우스운 지은 적이 있었다. 즉 서독 간호원들은 우리 간호원들 보다 대체로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편이고로 독일어에 서툰 우리 간호원들이 영어로서 독일 의사들과 주고 받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는 대부분의 서독 간호원은 질투심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질투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남자 의사들과는 영어로 이야기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우스운 이야기도 들었다.

현재 그곳에서 일하는 우리 간호원들은 어학에 대하여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었다. 매일 과외 공부로서 그곳에 있는 한국인 신부를 초청해 다가 혹은 영어에 익숙한 독일 여자 어학교사를 청해다 독일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한국 간호원들을 가르치기를 꺼려하던 어학선생도 한두번 가르치는 동안에 너무나 그들의 어학의 진도가 빠른 것에 놀라서 이제는 자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으며 때때로 같이 “피크닉”까지 가서 특별수업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흐뭇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서독에 있는 우리 간호원들이 대체로 얼마만한 수입이 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후랑크 후르트”에 있는 우리 간호원들은 잘만 절약할것 같으면 매달 리블 100 딸타 정도는 저축할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돈을 가지고 낭비를 하지 않고 또박또박 저축을 한다든가 본국으로 송금을 한다는 것을 듣고 다시 한번 그들의 슬기로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벌도록;

나는 이번 유럽 여행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간호원들을 다 만날 수는 없었지만 “놀웨이”에 있는 중앙의료원 출신의 간호원들과 “후랑크 후르트”에 있는 우리학교 출신의

간호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느낀 것은 한국의 간호원들이 해외 진출하는 것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되었다. 내가 귀국한 후에 우리나라 각 의로 기관에서 간호원이 모자라서 큰 일이라는 아우성을 못들은 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우수한 간호원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선진국의 우수한 기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의화를 벌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었다. 다만 “스칸디나비아” 몇나라에 있어서는 서울에 있는 중앙 의료원의 설립 목적과 다소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해서 한국 간호원 특히 중앙 의료원에서 의무연환을 마치지 않은 간호원들이 “스칸디나비아” 각국에 진출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스웨덴” 한 나라만은 한국 간호원들의 “스웨덴” 입국을 허가치 않는다는 잠정적인 조치를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장차 “스웨덴”을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는 우리 간호원들의 진출을 영구적으로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서독에서는 계속해서 한국 간호원들의 진출을 받아드릴 모양으로 느껴졌다.

내가 처음으로 “후랑크 후르트”에 도착한 6월 28일에 이수길씨가 제 3진으로 100여명의 한국 간호원들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국 간호원들의 유럽 진출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그것이 교육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외화 획득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여러가지 논란이 많은 모양인데 내 생각으로는 한국보다 더 조건이 나은 선진국으로 진출하는 간호원들에 대하여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우리 간호원들이 유럽으로 진출하는데 있어 알선하는 사람이 개인이든 단체이든 간에 우리나라 간호 관계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의미에서라도 계약조건에 대하여 좀더 신경을 쓰고 도와주고 또한 그들의 조건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필요치 않은가 생각되었다.

사실 깨알같이 박혀 있는 독일어로 된 복잡한 내용의 계약서를 그곳에 가자마자 여러 사람 앞에서 읽어 보지도 않고 싸인하였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경고의 말을 나는 여러 간호원 한테서 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출발 전에 서울에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조금이라도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당국자들은 도와주어야 될 줄 생각되었다.

한편 서독에 가 있는 우리나라 광

부들을 위하여 우리정부의 노동청에서 노동 관리관이 그 곳에 파견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와 비슷한 목적으로 수백명의 우리 간호원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간호 전문가가 유럽에 상주하여 우리 간호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일에 전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끝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볼웨이”의 “발도센” 병원에 갔을 때든가 또는 서독의 “후랑크 후르트” 대학병원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원들에게 모국의 신문을 보고 있느냐고 물어 보았으나 그것을 보고 있다고 대답하는 간호원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 나는 펍 미안한 감을 느꼈던 것이다. 매 사람에게 한부씩의 신문을 항공편으로 보내기는 막대한 송료때문에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한부의 신문이 100여명의 우리 간호원들의 궁핍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적어도 국내의 어느 기관에서 그러한 집단적인 장소에 우리나라의 신문 한장 쥘은 항공편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모국과의 관계를 더 굳게 해 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가 생각되었다.